

“검은 반도체 ‘장흥무산김’ 세계화 맞 올렸다”

장흥군·장흥무산김·K-글로벌 푸드 3자 업무협약 맺어

세계 10개국 유통망 갖춘 총판 플랫폼 통해 김 수출 본격화

장흥군은 1일 장흥무산김(주), K-글로벌 푸드와 함께 장흥무산김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흥군과 장흥무산김 관계자, K-글로벌 푸드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해 장흥무산김의 세계시장 진출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대한민국 김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수출 효과 품목인 이른바 ‘검은 반도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K-김 열풍의 중심에 선 ‘장흥무산김’은 산 처리 없이 오직 자연의 햇빛과 청정 해풍으로 길러내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친환경 김의 대표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흥무산김은 우수한 맛과 향,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업의 모범 사례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번엔 장흥군과 손을 잡은 K-글로벌 푸드는 대한민국의 우수식품(K-Food)을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세계 10개국에 전문적으로 수출하고 유통하는 글로벌 총판 플랫폼 기업이다.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탄탄한 해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흥무산김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 관리 ▲세계 10개국 대상 맞춤형 마케팅 및 유통망 확보 ▲글로벌 K-푸드 시장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무산김이 세계 10개국 유통망을 보유한 K-글로벌 푸드와 협력하게 되면서 글로벌 프리미엄 식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장흥을 대표하는 무산김이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K-푸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 수출까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순천,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호응’

눈높이 맞춤 공연으로 흡연 예방 중요성 전달

순천시는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순천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금연 인형극 ‘생명시계와 타임마스터’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흥미로운 이야기와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오전과 오후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사전에 신청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8개소의 영유아 576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인형극 ‘생명시계와 타임마스터’는 주인공 길용이가 우연

히 발견한 ‘생명시계’를 통해 가족의 건강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들의 흥미를 끄는 캐릭터를 활용해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해 반응이 좋았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 시절부터 흡연의 위험성과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흡연 예방 교육과 금연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나주, 남평읍·노안면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완료

나주시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환경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남평읍과 노안면 지역의 노후 건물번호판 3937개를 무상 교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나 훼손되거나 색이 바랜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시인성 향상과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응급상황과 각종 생활 서비스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주민 편의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가운데 도로명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관리하지만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나주시는 노후 건물번호판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무상 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건물번호판 정비는 주소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방문객과 택배·배달 기사, 응급구조기관 등이 목적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나주=최준호 기자

광양시, 에블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 대비 주의 당부

광양시 보건소는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등에서 에블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에블라바이러스병의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한 상태다. 에블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약 25~90%에 이르는 중증 감염병으로, 국내에는 아직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감염경로는 ▲동물과 사람 간 감염 ▲사람 간 감염으로 구분된다. 동물과 사람 간 감염은 유행지역에서 에블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 야생동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사냥한 동물을 취급·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람 간 감염은 에블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상처 난 피부 또는 점막에 닿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에블라바이러스병 회복 환자와의 성접촉이나 모유수유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중점지역관리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뒤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설사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광양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061-797-4011)에 먼저 신고·상담해야 한다.

해남서 올해 첫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검정 열린다

오는 5일 우슬체육관·삼산파크골프장서 개최

전국적인 파크골프 열풍 속에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는 올해 첫 자격검정이 해남에서 열린다.

(사)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가 주관하는 2026년 전반기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 검정이 오는 5일 해남군에서 개최된다.

이번 자격 검정은 (사)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증 시험으로, 전국 각지에서 총 520명의 응시자가 접수를 마쳐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파크골프가 단순한 실버 스포츠를 넘어 국민 레저 스포츠로 급성장함에 따라, 현장 지도자 수요를 선점하려는 응시자들이 대거 몰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번 대규모 검정을 유치하며 스포츠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해남군내 파크골프장은 지난 2021년 문을 연 중부권(해남읍, 화산, 삼산, 현산, 북평, 마산) 삼산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서부권(산이, 화원, 문내, 황산)의 산이골프장, 남부권(송지, 북평)의 송지골프장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 18홀 규모로, 관내 파크골프 총 회원수는 10개 클럽, 1,120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동부권(옥천, 계곡)의 동부파크골프장 27홀, 중부권의 화산 파크골프장 9홀, 서부권의 화원 파크골프장 18홀 등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고, 스포츠프라크와 서부권에도 파크골프장 추가 건립을 계획하는 등 파

크골프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엄격히 검증하기 위해 지필과 실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필시험은 5일 오전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실시되며, 파크골프 규정과 지도자 소양 등 전문 지식을 평가한다.

실기시험은 자리를 옮겨 삼산파크골프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자들의 실제 경기 운영 능력과 현장 지도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500명이 넘는 응시자와 관계자들이 해남을 찾은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김동주 기자

영암,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 59명 발굴·의료비 지원

두 달간 1911만원 지원... 미숙아 건강 회복 사례도

영암군이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과 이주민 입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인 ‘프로젝트 169’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 169’는 영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광주은행,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생미등록 외국인아동과 입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행은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센터장 김남미)가 맡고 있다.

사업 시행 이후 4~5월 두 달간 총 59명의 대상자를 발굴했다. 국적별

로는 캄보디아 22명, 필리핀 16명, 베트남 11명, 태국 8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아동 17명과 산모 9명에 걸쳐 총 1,911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진료·검사·입원·수술비, 산전진료와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필리핀 국적 산모가 예정일보다 일찍 미숙아를 출산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600만원의 의료비를 긴급 지원했

다. 치료를 받은 아기는 1.8kg의 몸무게로 건강을 회복해 무사히 퇴원했다.

김남미 영암통합상담지원센터장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입산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연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들과 이주민 입산부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무릎인공관절·안질환 수술비 지원’ 군민 큰 호응

60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경제적 부담 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상시 추진

진도군의 ‘무릎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2024년 12월 26일에 조례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무릎 27건(23명), 안질환 210건(132명), 2026년에는 5월까지 무릎 25건(18명), 안질환 95건(58명)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까지, 안(眼)질환 수술비는 한쪽 안(眼) 기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안질환 수술비는 백내장과 녹내장 관련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급여 부분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수술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0세 이상 군민’이다.

조도면의 한 군민은 “고액의 수술비가 경제적으로 부담돼 수술을 미뤘었는데, 진도군의 수술비 지원을 통해 무릎 통증에서 벗어났다”라며 진도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진도군 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추진하며 촘촘한 의료 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환자 가구



의 ‘소득·재산수준(140%)’,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200%)’을 조사하고 평가해 기준에 해당한 대상자를 지원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담양, 드림스타트 아동권리 교육 운영

디지털 습관·성가치관 등 건강한 성장지원

담양군은 최근 담빛청소년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25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소양을 기르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루 동안 세 개 과정을 나눠 참가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건강한 디지털 교육’을 주제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두 번째 시간에는 ‘건강한 성장 교육’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

를 존중하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간으로 채웠다.

마지막 시간에는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을 활용한 아동권리 이해교육이 진행됐으며, 아동들은 영화를 시청한 뒤 토론과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웠다.

군 관계자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보호·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양=정진성 기자

광양, 수돗물 안심확인제 연중 무료 운영

가정 방문 수질검사 실시

광양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무료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 확인을 원하는 시민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15일 이내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 총 6개 항목이다.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상수도관을 거쳐 가정에서 공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다.

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망간 ▲색도 ▲경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 신청은 광양시청 상수도과(061-797-2688, 4878) 또는 물사랑누리집(https://www.ilovewater.or.kr)을 통해 연중 가능하다.

광양시는 지난해 70여 곳을 대상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는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함께 매일·매주·매월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과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은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화순, 여름꽃 4만 본 공급... 거리경관 새 단장

고온·강우에 강한 품종... 주요 화단·관광지 등 식재

화순군은 여름철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 위해 자체 육묘한 여름꽃 4만 본을 관내 주요 화단과 관광지 등에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이상 기후에 대응한 경관 조성을 위해 고온과 강우에 강한 화종 위주로 재배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꽃 공급 시기도 기존보다 늦춘 6월 초로 조정해, 여름철에 안정적으로 개화하고 경관이 유지되도록 중점을 뒀다.

이번에 공급되는 여름꽃은 메리골드, 일일초, 토레니아, 미니백일홍 등 4종으로 지난 4월부터 농업기술센터 꽃육묘장에서 직접 생산·관리해 왔다. 생산된 꽃은 군청 각 부서

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요 도로변 화단과 관광지 등에 순차적으로 식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고온과 집중호우에도 생육이 비교적 안정적인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해, 꽃이 피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화사한 여름꽃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사계절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순을 조성하기 위해 양질의 초화류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유정현 기자